

□ 연극

□ 연극

□영화
“할리우드…” 영화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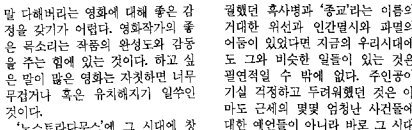
로 내건 이 영화는 한 영화광의 삶을 통해 영화에 대한 추억과 향수, 지나는 우리의 슬픈 문화사를 진지하게 그리고 있다. 60년대 극장 풍경, 거리,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련한 추억거리를 가져다주며 현

장소의 인류를 사랑했던 목소리가
나아있겠는가.

삼상 디아니나 올라 거위가 표현
완벽한 중세의 복장, 노스트라
카 예언해낸 헨리왕의 마상
에서의 죽음, 14세기의 아름다운
정원들과 궁정, 몽펠리에 거리의
한 고딕 건물들은, 더 군주기를
없었던 노스트라다무스가 꾸었
환상인 흑우(黑雨)속의 미당은
그들의 그 인터넷을 표정과 어울
정말 유감없는 좋은 영화이었으
생각한다.

이것이 아니라 영화로서의 '노라다무스'인 것이다. 테니스 크의 역동적인 카메라워킹과 크리의 연의 각 절제된 탄탄한 구성면 불구하고 영화는 마지막 장면 이르러서야 '아직도 우리가 예 따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' 감동의 격정스러운 하는 눈빛 뒤로하고 우리를 좌치는 어린아 나랑 매력속으로 어두운 극장 밖 종종히 걸어나가듯 조용하고

박 용
(연무대)



대학주보사

박 옹
(역무.88)